괴테클럽 독서 감상문

작성자	박송희	토론일	2022.07.01
도서명	좀머씨 이야기	저자	파트리크 쥐스킨트
별점	4.8/5		
만족스러운 점과 아쉬운 점	좀머씨를 둘러싼 무성한 소문들 사이에서, 철저하게 관찰자 시점에서 내용을 서술한 점이 오히려 부담스럽지 않아 좋았다.		
한줄평	유일하게 좀머씨의 말에 귀 기울여준 사람의 좀머씨 관찰 일기		

기억에 남는 표현이나 문장들

"그러니 제발 나를 좀 그냥 놔두시오!"

'그까짓 코딱지 때문에 자살을 하다니!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했던 내가 불과 몇 분 전에 일생을 죽음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을 보지 않았던가!'

'사진에 좀머 아저씨는 검은색 머리에 숱이 많았고, 집요한 눈빛과 입술에는 확신이 차고 거의 뻔뻔스럽게까지 느껴지게 만드는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 밑에 처음으로 좀머 아저씨의 온전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막시밀리안 에른스트 에기디우스 좀머.'

'그러다가 신문이 누렇게 변색되기 전에 좀머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는 수그러졌다. 그래도 어느 누구도 그를 그리워하지는 않았다.'

'리들 아줌마는 아저씨의 몇 가지 물건들을 지하실의 한구석에 몰아 놓았고, 그 방을 여름 행랑객들에게 빌려주었다. 하지만 아줌마는 그런 사람들을 <여름 행랑객>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름>이라는 말이 그녀에게는 다른 생각이 들게 하기 때문이라면서 <도시 사람들> 혹은 <여행객>이라고 불렀다.'

감상

제목은 <좀머씨 이야기>지만 시실 소설 속에서는 '좀머씨 이야기'의 비중이 많지는 않다. 그러나 좀머씨를 관찰하는 관찰자의 에피소드 속에서 아주 작은 분량이라도, 늘 어딘가를 향해 걷고 있는 좀머씨가 등장한다. 이러한 점은 철저한 관찰자 시점에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제목에 대해 의문이 들기보다는 쉽게 수긍한 것 같다.

그러나 관찰자는 좀머씨가 왜 매일 그렇게 걸어다니는지에 대해서는 묘사만 할 뿐, 그 이유에 대해서 다른 마을 사람들이 멋대로 만들어낸 소문만 언급할 뿐, 개입하지 않는다. 이 책이 쓰인 배경이 제 2차 세계대전 후인 것과 소설 속의 좀머씨의 나이대를 고려하면, 전쟁이나 그와 관련된 잔혹한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어 사람들을 비롯한 모든 것을 회피하고

그것들로부터 도망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또한 관찰자는 좀머씨가 자살할 때 그것을 관찰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않았는데, 그것을 묵인했다기보다는 좀머씨의 "그러니 제발 나를 좀 그냥 놔두시오!"라는 말에 유일하게 존중해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말했듯 관찰자를 제외한 마을 사람들은 좀머씨에 대해 무성한 소문들을 만들어낸다. 좀머씨가 폐소공포증이 있어서 매일 그렇게 밖을 걸어다닌다던가, 좀머씨의 묘연한 행방에 대해 미쳤다던지, 길을 잃어버려 다시 집으로 가는 길을 못 찾았을 것이라던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을 거라는 등 그에 대해 멋대로 생각하고 말한다. 이 작품이 인간 소외를 다룬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대상은 좀머씨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일 것이다. 좀머씨가 능동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삶에서 소외시킨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